

# GS칼텍스, 삼일폴리머 전격 인수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참여 ... 의무사용비율 확대에 온실가스 감축

GS칼텍스가 플라스틱 재활용기업 삼일폴리머를 인수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GS칼텍스는 플라스틱 재활용 전문기업인 삼일폴리머를 인수했다고 2월4일 발표했다.

리사이클 플라스틱은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서 분리·수거한 폐플라스틱을 첨가제와 함께 재가공해 생산한 플라스틱이다.

GS칼텍스 관계자는 “폐플라스틱 1톤을 재활용할 때 이산화탄소가 1.26톤 감축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유럽에서는 2000년 초부터 시장이 형성돼 매년 20% 이상 성장세를 나타내는 분야”라고 소개했다.

이어 “리사이클 제품 의무사용비율 확대, 온실가스 감축의무 강화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앞으로 국내 리사이클 플라스틱 시장도 급성장할 것”이라며 “삼일폴리머 인수를 계기로 자원 리사이클링 사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2/04>